

세계화 속의 차이나 쇼크(1)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한국 미래의 경영은 일곱 가지 쇼크를 겪었다. 세계화 쇼크, 정보화 쇼크, 민주화 쇼크, 고령화 쇼크, 자원무기화 쇼크, 여성세력화 쇼크 그리고 중국 쇼크다. 20세기 후반 동독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 이념 대국 소련이 해체되었다. 이에 질세라 중국의 개혁개방의 바람도 거세게 불었다. 이렇게 미국은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20세기말 미국은 세계의 로마가 되었다. 과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는 서로 팽팽한 긴장과 경쟁이 있었다. 그래서 만행과 독주가 쉽지 않았다. 여러 면에서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그것을 양극체제(兩極體制)라고 한다면 21세기엔 일극체제(一極體制)가 된 셈이다. 경쟁과 견제가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는 곧 미국화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뒷면은 바로 미국 스탠다드였다. 미국자태에 거스르면 모두 적과 악(惡)이 됐다. 왕왕 독재는 오만과 편견을 부르기 마련이다. 세계의 독재가 된 미국도 그러한 점이 있다. 매사를 대화와 타협 그리고 거래와 비즈니스보다 힘으로 해결하려 들었다.

힘으로 구사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리더십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역사 속에서도 잘 알수 있다. 고려 때 ‘정중부의 난’인 ‘무인시대’의 흑정이 그랬다. 한국현대사에서도 쿠데타를 통해 탄생한 박정희 정권이 있었다. 힘에 의한 통치란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아무리 가난을 구제했다고 공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호도된 공치사다. 한국국민은 일제에 억눌려 살다가 열강에 의해 해방을 맞았다. 그래서 분단 조국끼리 한바탕 전쟁을 겪었다. 학생들의 4.19민주항쟁으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섰다. 하지만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해 구데타로 한국은 점령됐다. 철권, 억압, 중앙정보부 협박정치에 의한 압제로 세상은 바뀌었다.

국민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독재에 시달렸다. 민주국가에 ‘통치자’란 말이 웬 말인가. 국가경영, 국가경영자가 있을 뿐이다. 여하간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흑자의 말이다. 미꾸라지를 통에 넣어 싱싱한 채로 운반하려면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라고

한다. 메기의 괴롭힘을 당하는 미꾸라지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게 운동이 된다. 결과적으로 메기는 공헌이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런 이치라면 미꾸라지 국민이 메기인 정권의 괴롭힘에 감사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생존의 몸부림 그것이 국민소득 100달러를 1만 달러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괴롭힘을 덕으로 보려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 입장에서서는 억울하다.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을 강제 병합 후 36년간 수탈했던 일본도 한국 근대화는 자기들 공이라고 떠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진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정경유착의 덕을 본 일부 기득권(재벌과 일부 정치세력)과 그들에 의해 흑세무민 당하는 어리석은 일부 군중이 있을 뿐이다. 요즘도 박정희 향수를 불러 일으켜 이(利)를 취하려는 간교한 유신잔당이 있어 통탄스럽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경쟁자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이득을 취하려는 값싼 전술의 단맛을 즐기려는 가짜 보수가 아직도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힘은 심복의 충질을 낳았고(김재규의 충질) 또 국민을 향해 충질하는 만행(광주사태)을 낳았다. 그리고 사이비 보통사람(?)으로 국민을 속인 노태우 정권의 시기극을 겪었다. 바로 무인시대인 힘의 시대 그것의 실체였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8일 (금)	12월 11일 (월)	12월 12일 (화)	12월 13일 (수)	12월 14일 (목)
미	달	러	(USD)	1322.70	1307.90	1318.30	1315.70	1316.50
일	본	엔	(JPY)	919.15	903.09	901.93	904.76	923.76
영	국	파	운 드	(GBP)	1665.21	1641.28	1654.73	1653.57
캐	나	다	달 러	(CAD)	972.65	963.00	971.02	968.21
홍	콩	달	러	(HKD)	169.33	167.47	168.90	168.48
중	국	원	(CNH)	184.27	182.55	183.31	183.08	183.00
유	로	화	(EUR)	1427.59	1408.22	1419.02	1420.69	1432.48
호	주	달	러	(AUD)	872.59	860.93	865.46	863.30
싱	가	폴	달 러	(SGD)	987.49	974.84	980.77	980.80
말	레	이	시	링	기	트	(MYR)	282.99
								280.39
								281.54
								280.86
								279.75